



해상보험 실무

해운·조선·물류·수산(바다) 최고위과정 제6기

2024.4.17

CONTENTS

해상보험의 내용과 역사적 배경, 현황을 살펴보고
실무적 활용 방안을 생각해본다.

01
개요

02
역사

03
현황

PROFILE

권오정

법학박사, CPCU, ARe, AIC

-
- (주)에이엠씨손해보험중개 상무
 - 前 삼성화재 해상보험파트장
 - 前 삼성화재 런던사무소/유럽법인 주재원

01

해상보험

- 해상보험계약의 법적정의
- 해상보험계약의 종류



해상보험?



#손해보험

#선박보험

#해난사고

#적하보험

#로이즈

#수출입무역

#영국

#피앤아이(P&I)



법률상 ‘해상보험계약’

- 상법

제638조 (보험계약의 의의)

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**보험료를 지급**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**보험금이나 그밖의 급여를 지급**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.

제693조 (해상보험자의 책임)

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**해상사업에 관한 사고**로 인하여 생길 **손해를 보상**할 책임이 있다.

-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

제1조(해상보험의 정의)

해상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합의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, 즉 **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**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**손해보상**을 약속하는 **계약**이다.

01 해상/보험/계약

[해상보험계약 = 해상사업(adventure/business)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]



해상위험

Maritime
Perils



손해보상

Indemnity



계약

Contract

01 해상위험

[해상위험 = 바다의 항해에 기인하거나 부수하는 위험]

해상위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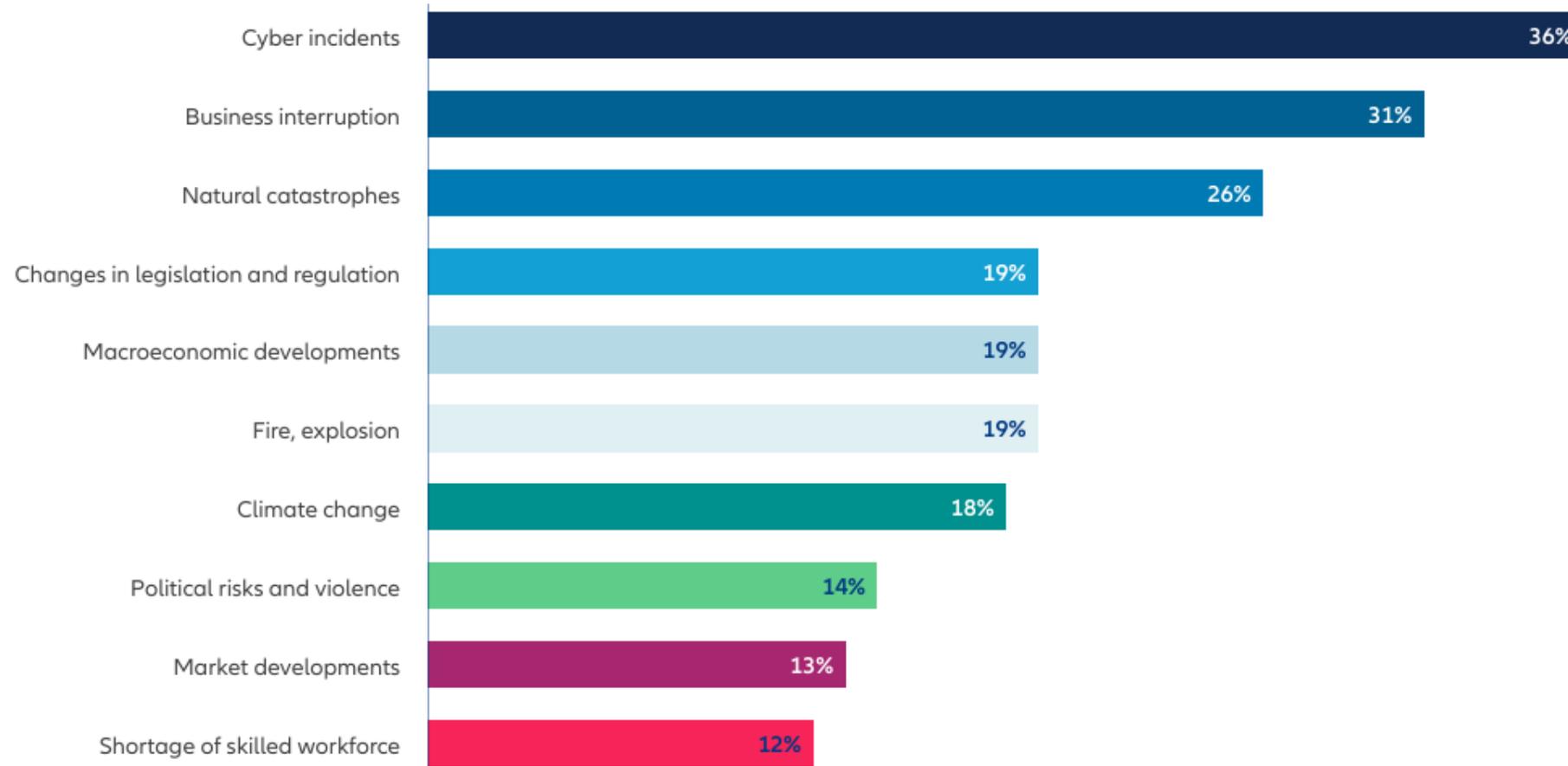
- 해상고유의 위험(Perils of the seas)
→ 바다의 우연한 사고나 재난(침몰, 좌초, 충돌 등)
- 해상의 위험(Perils on the seas)
→ 화재, 해적, 선원의 악행 등
- 전쟁 및 동맹파업 위험
- 기타 보험증권상 기재된 일체의 위험



The most important business risks in 2024: global

Allianz Risk Barometer 2024

Figures represent how often a risk was selected as a percentage of all survey responses from 3,069 respondents. All respondents could select up to three risks per industry, which is why the figures do not add up to 100%.



Top 10 risks

"Please estimate the likely impact (severity) of the following risks over a 2-year and 10-year period."

2 years



10 years



Risk categories | Economic | Environmental | Geopolitical | Societal | Technological

Source: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isks Perception Survey 2023-2024.

Top 5 risks in Marine and Shipping in 2023

Rank		Percent	2022 rank	Trend
1	Fire, explosion (화재/폭발)	29%	3 (25%)	↑
2	Changes in legislation and regulation (e.g. <i>trade wars and tariffs, economic sanctions, (제도 변경-무역제재) protectionism, Euro-zone disintegration</i>)	25%	NEW	↑
2	Cyber incidents (e.g. <i>cyber crime, malware/ (사이버사고) ransomware causing system downtime, data breaches, fines and penalties</i>)	25%	4 (23%)	↑
4	Business interruption (<i>incl. supply (기업휴지-물류중단) chain disruption</i>)	23%	1 (42%)	↓
4	Natural catastrophes (e.g. <i>storm, flood, (자연재해-기상이변) earthquake, wildfire, extreme weather events</i>)	23%	2 (33%)	↓

01 손해보상

[손해보험의 원칙 = 실손보상]

實損보상

- Indemnify = In(not) + demn(hurt) → "훔입은 것을 없앴"
- 보험계약자를 손해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으로 이득이나 수익이 없을 것
 - 피보험이익
 - 보험자 대위
 - 손해액 시가주의(보험보상시 감가상각 감안)
- 원칙의 예외
 - 기평가보험, 신규교환 미공제(New for old), 공제금액 등



01 손해보상

【報償 vs 賠償】

구분	보상	배상
의무자	보험자	불법행위자 및 계약(채무)불이행자
근거	보험계약	법률(민법 등)
내용	적극적 손해(재산상의 실제손해) * 다른 손해는 특약으로만 보상	적극적 손해 + 소극적 손해(일실�이익 등) + 정신적 손해(위자료 등)
손해범위	계약상 보상하는 손해에 기인한 것	배상책임의 원인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
기타	보험계약자/피보험자 등의 고의/중과실은 면책	의무자의 고의/중과실/경과실은 책임인정의 주관적 요건

01 영미법상 계약

["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(*pacta sunt servanda*)."]

계약

- Contract = 법적으로 강제되는 당사자간의 약속이나 합의 (미국통합상법전(UCC) 제1조 제201항).
- 계약의 성립 요건 = 청약(offer) + 승낙(acceptance) + 약인 → 합의 or 불합의
- 약인 = 대가 관계 (consideration, 約因)
 - 약속자(promisor)에 대한 이익(benefit) / 수약자(promisee)에 대한 불이익(detriment)
 - 계약에 법적강제성(enforcement)를 부여하는 요소
 - 영미계약법의 고유한 개념 (sth given in consideration for a promise)



[영국판례] ‘Ever Given’ – 구조, **계약**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?



(Image credit: MAXAR, 판결문에서 재인용)

SMIT Salvage BV & others -v- Luster Maritime S.A. & another (Ever Given – salvage claim) [2024] EWCA Civ 260

- 급박한 구조상황이라도 커먼로 상 계약성립의 요건이 적용됨
→ 청약/승낙/약인
+ 명시적으로 구속력있는 계약 조건 합의
- 구조보수에 대한 합의만으로는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님
- 합의된 조건이 포함된 문서상 각 당사자의 서명 요구
- 임의구조로 간주시 국제구조협약 혹은 해당국가 법률적용

01 보험계약의 성립

[법률상 절차와 의무]



-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**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**로부터 개시된다(상656조).
-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**지체없이**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(상640조).

01 보험계약의 특징

[보험증권(계약서) = 법률적 문서]
[일반계약과 다른 특징]

사행/선의계약
성

부합계약성

유상/쌍무계약
성

낙성/주요식계
약

계속계약성

독립계약성

영업성

01 해상보험계약의 특징



역사성

보험제도의 기원

→ 보수성



국제성

국제무역의 요소

→ 외국(영국)준거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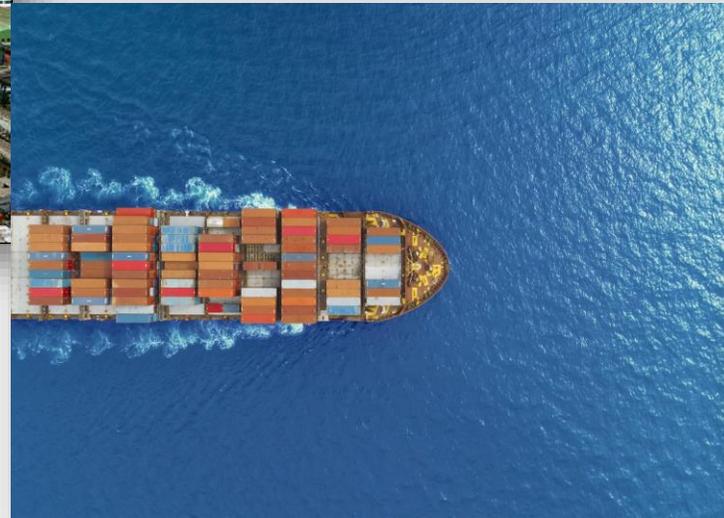
기업성

전문상인간 거래

→ 계약자유원칙

01 해상보험계약의 종류(1)

[피보험목적물(선박/적하 등)과 가입주체(건조자/선주/화주/항만운영자 등)에 따른 분류]



01 해상보험계약의 종류(2)





02

해상보험의 역사

- 보험제도의 기원
- 로이즈



02 제도화: 해사관습에서 입법까지



02 기원: 모험대차(冒險貸借)

[B.C. 18C]

Bottomry Respondentia

- 함무라비왕(BC1792-1750)이 반포한 고대 바빌로니아 법전
 - 선박과 화물을 담보물로 하는 소비대차 조항 포함
 - 선주나 화주는 항해가 무사히 종료되면 원금에 고율(12%~20%)의 이자를 대주에게 상환하고 해난사고시 원리금 상환 면제
- * 'premium'=모험대차이율-일반금리



02 기원: 공동해손(共同海損)

[B.C. 1C]

General Average

- 지중해 무역의 중심이었던 에게해의 로도스섬의 해법에 포함(BC916)
- 항해단체가 해난을 당하여 공동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화물이나 선박 일부를 바다에 고의로 버리는 투하(jettison)를 해사관습으로 인정
- 로마 유스티아누스법전에 수록(AD529)



(출처: Lex Rhodia law office)

02 중세유럽

[14C]

Medieval Guild

- 11~12세기 덴마크 상인들이 해난사고시 구성원을 보상하는 Guild 구성
- 1347년 최초의 해상보험증권: 'Santa Clara'호
- 1384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보험 문서: Pisa에서 Savona까지 직물 운송관련



02 영국의 초기 해상보험

[16~17C]

England

- 16세기에 북이탈리아의 롬바르드 상인들이 영국으로 이주하여 은행과 보험의 개념 도입
- 1601 Francis Bacon : 상인들간에 사용되는 보험증권에 관한 법률 (An Act touching Policies of Assurances used among Merchants) 초안
 - * 1681년 프랑스, '해상보험에 관한 법률' 성문화
- 1745 The Marine Insurance Act
- 1906 Marine Insurance Act



02 영국의 해상보험제도 발전

[18~19C]

Lloyd's of London

- 1688 Edward Lloyd's의 커피하우스에 관한 기록
- 1730년대까지 개인이 인수하는 해상보험 거래소 역할
*19C초까지 법인에 의한 해상보험인수는 2개사만 독점 허용
- 1771 The Society of Lloyd's 구성
- 1871 Lloyd's Act 통해 법인화



02 영국의 보험시장

[Sharing risk to create a braver world]

Lloyd's of London

- 1904 자동차보험인수
- 1911 항공보험인수
- 1912 Titanic호 침몰사고보상
- 1965 위성보험인수
- 2001 세계무역센터 테러사고 보상

- 2023년 수입보험료 GBP52.1bn
*약90조원, 전년비 11.6% 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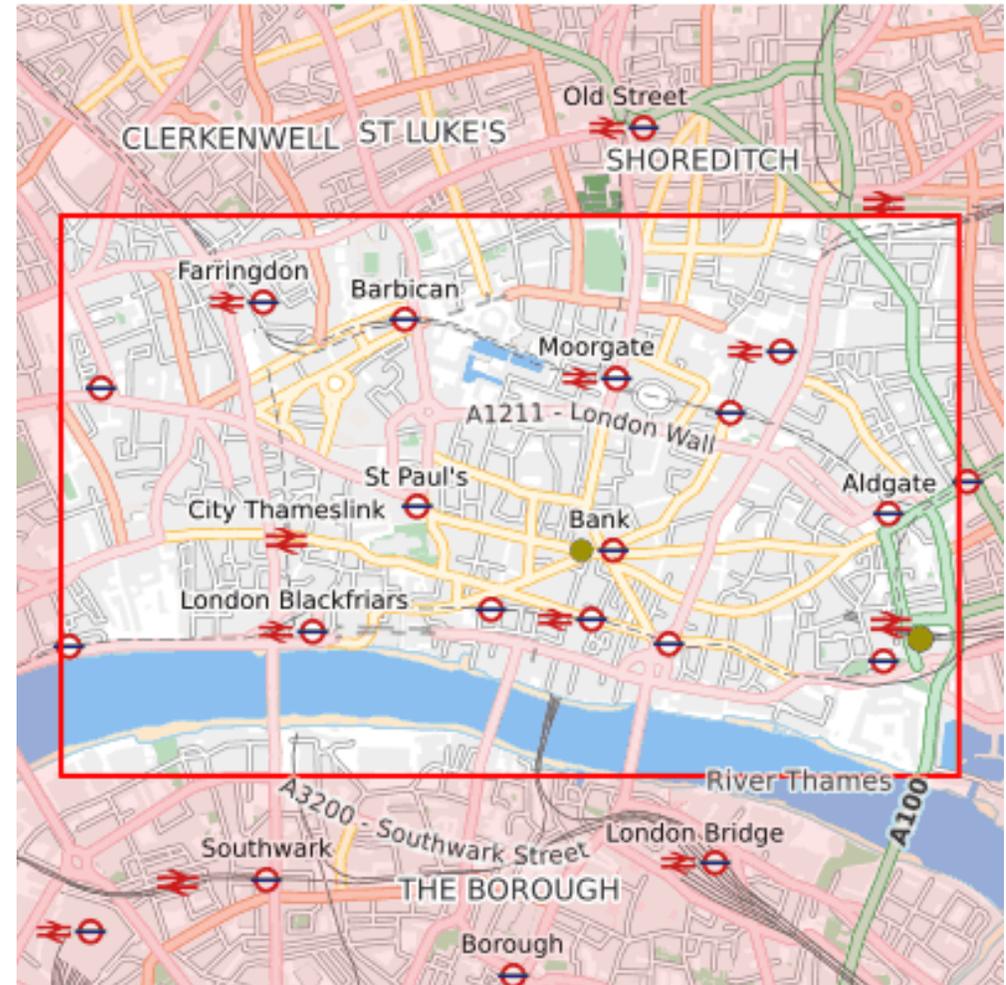


On Oct. 9, 1799 the frigate HMS Lutine sank off the Dutch coast. It was en route to Hamburg with a fortune in gold and silver bullion.

(출처: <https://www.bells.org/blog/lutine-bell-lloyds-london>)



Map showing the extent of City of London



Contains OS data © Crown copyright and database right 2021

02 우리나라 손해보험 및 해상보험 역사

- 1922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(메리츠화재 전신)
- 1952 한국안보화재해상보험 (삼성화재 전신)
- 1953 대한해상운송보험공동사무소 – 해상보험 pool
- 1955 동방해상보험(주) – 해상보험 전업사 (현대해상 전신)
- 1959 범한해상보험(주) – 해상보험 전업사 (KB손보 전신)
- 1967 한국해상보험공동사무소 – 해상보험 창구단일화
- 1968 각사 인수 체제로 전환

- 2023년 현재 원수보험사로는 국내사 11개사, 외자계 4개사가 해상보험계약 인수중

 현대해상

 DB손해보험

삼성화재

 MERITZ 메리츠화재

 *b KB손해보험

※ 보험회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주로 경영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. (보험업법 제8조 제1항)



03

해상보험의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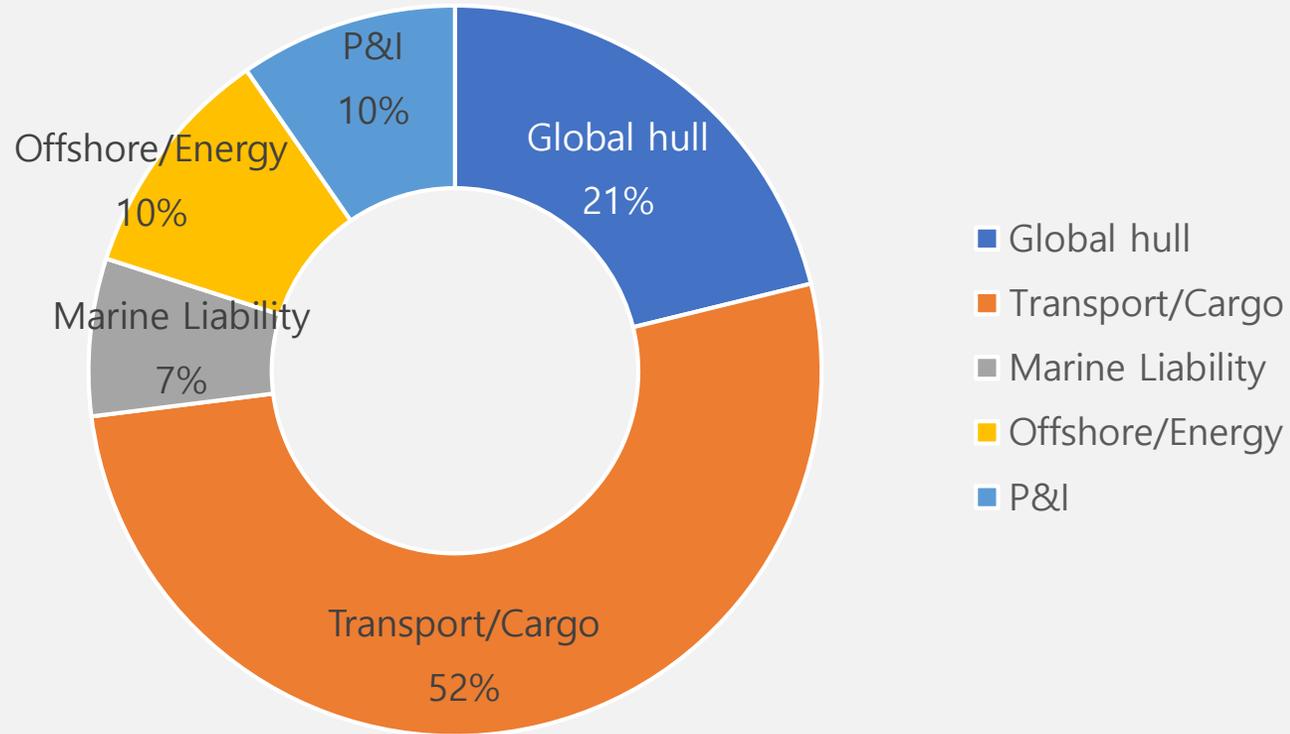
- 글로벌 해상보험 시장
- 우리나라 해상보험 시장



03 글로벌 해상보험 시장(2022)

[전세계 해상보험료 \$39.6bn (약51.5조원)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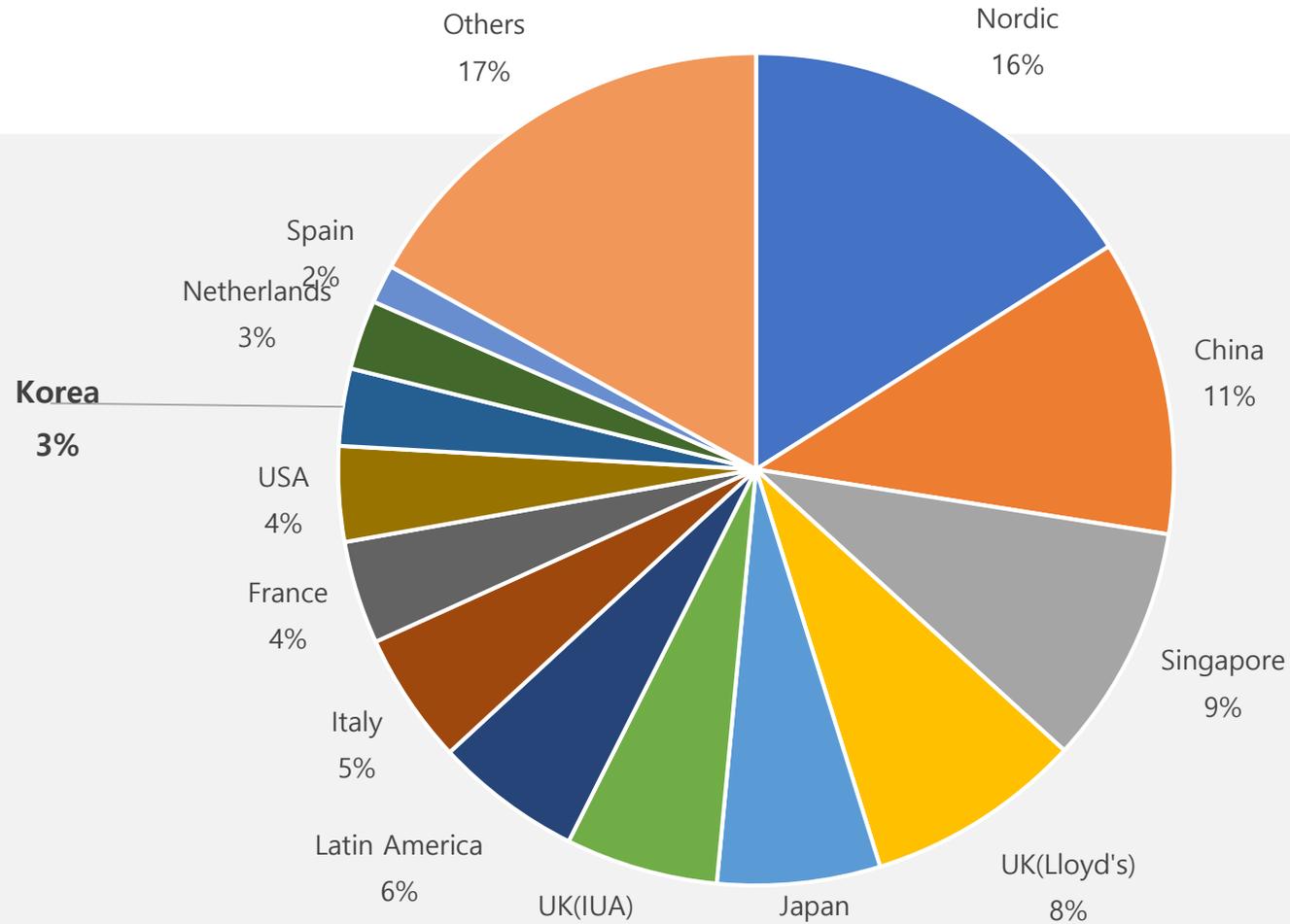
[전년비 9.6% 증가(적하 8.3% ↑, 선박 5.7% ↑, P&I 22.9% ↑)]



(* Source : IUMI, 'Global Marine Insurance Report 2023')

03 국가별 선박보험료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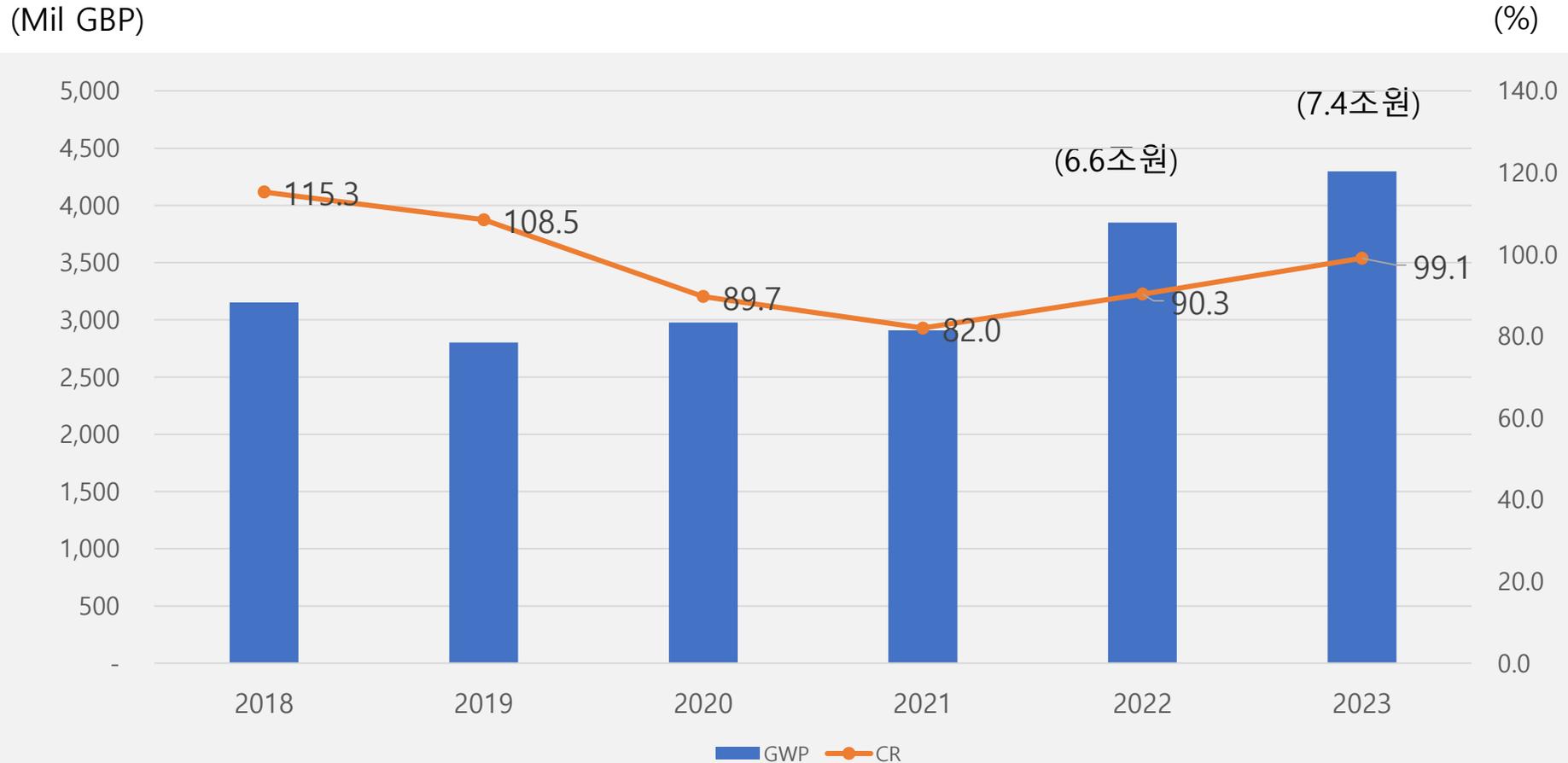
[Nordic 16%, 영국(IUA+LLOYD'S) 14.3%, 한국 3%]



(* Source : IUMI, 'Global Marine Insurance Report 2023'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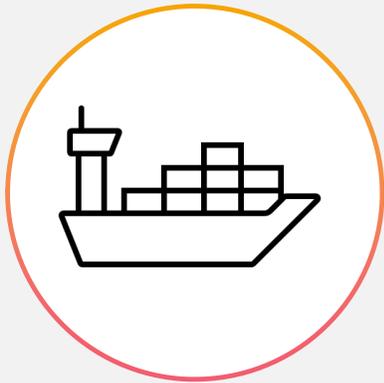
03 Lloyd's의 해상항공보험 연도별 실적/손익

[전년비 매출(GWP) 11.5%↑, 합산비율(C/R) 8.8%p↑]



(* Source : Lloyd's of London, 'Annual Report 2023')

03 글로벌 해상보험업계의 이슈



선박대형화



ESG



전쟁



화재



Inflation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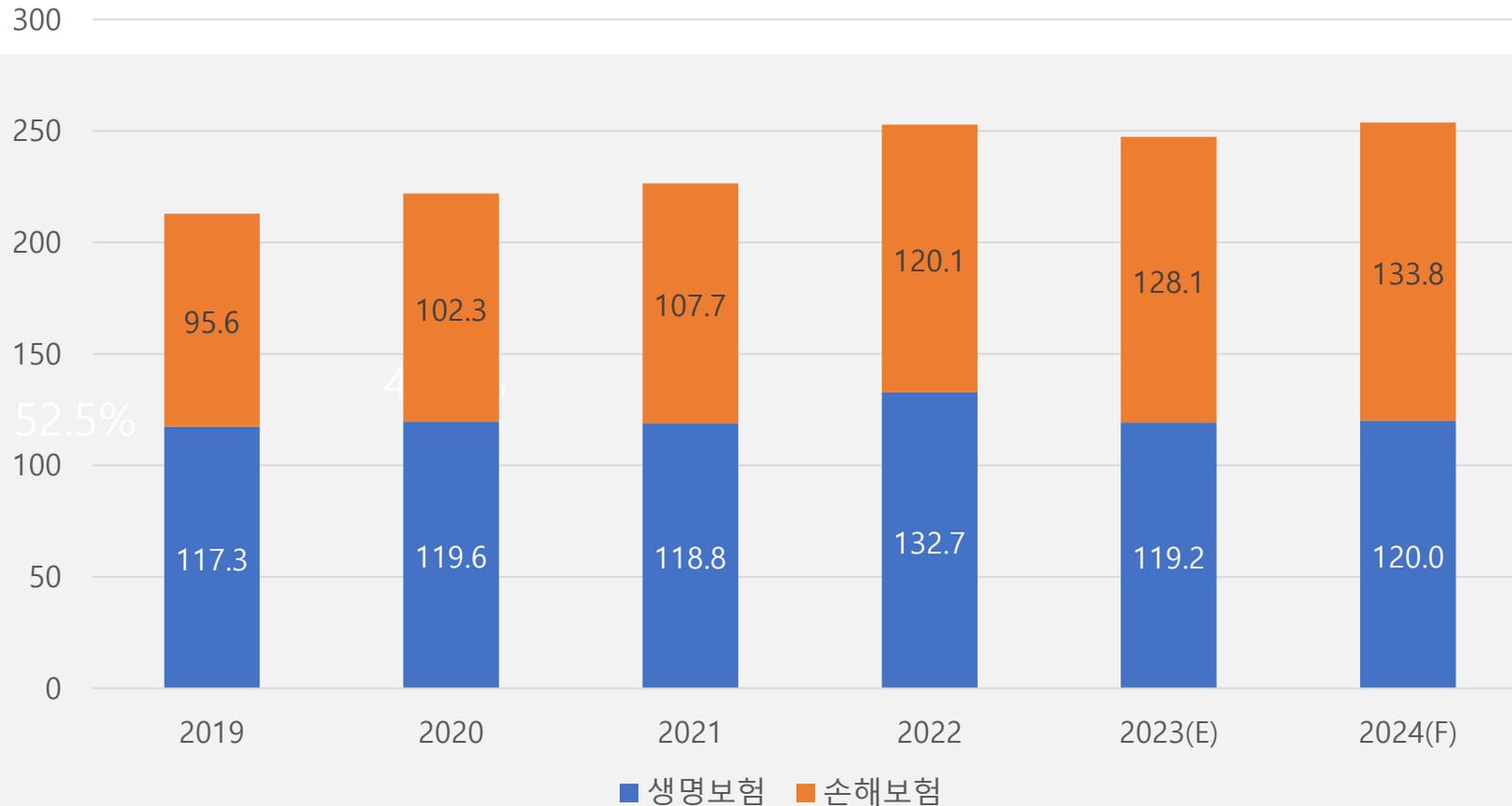
03 국제해상보험자연합(IUMI) 연차회의 주제



03 우리나라 보험시장 규모

[24년 전망 - 총253.8조원]

[생명보험 47.2%(0.6% ↑), 손해보험 52.8%(4.4% ↑, 성장율은 감소(23년도 6.7% ↑))]



(* 출처: 보험연구원, 202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, p.5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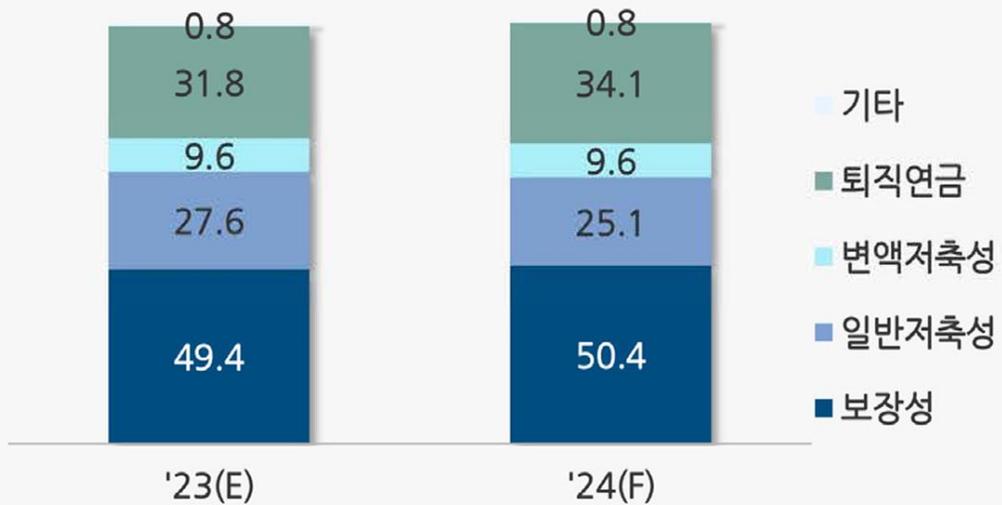
03 우리나라 보험시장 전망

[생명보험 : 저축성보험 역성장, 질병/건강보험과 퇴직연금의 성장으로 수입보험료 0.6%↑ 예상]

[손해보험 : 장기보험 완만한 성장, 자동차보험 소폭축소, 일반보험 5.2%↑ 예상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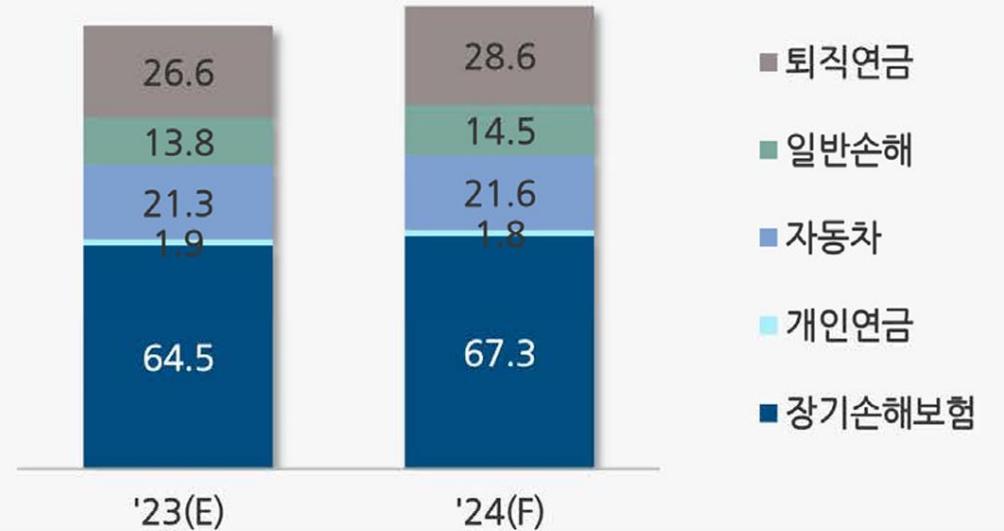
생명보험 종목별 규모 전망

(단위: 조 원)



손해보험 종목별 규모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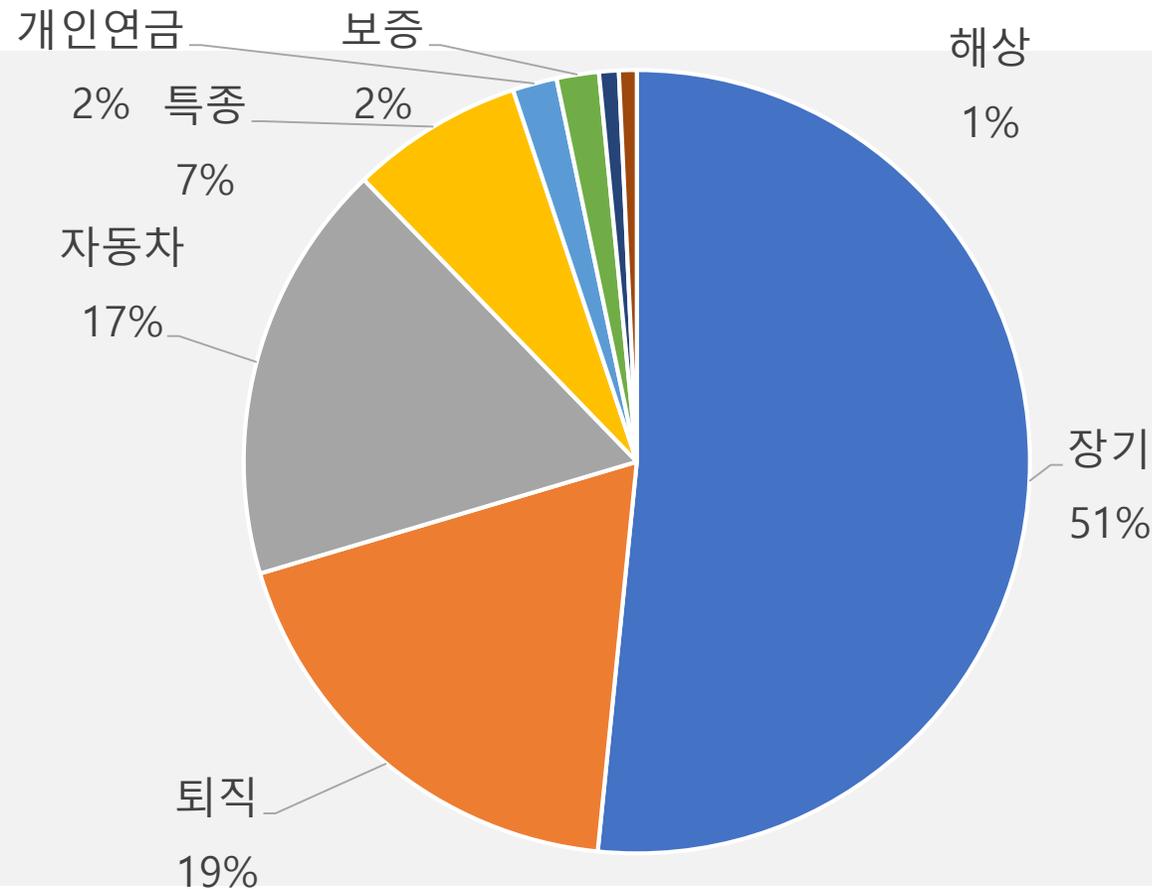
(단위: 조 원)



(* 출처: 보험연구원, 2024년 보험산업의 전망과 과제, p.59-60)

03 우리나라 손해보험시장 종목구성(202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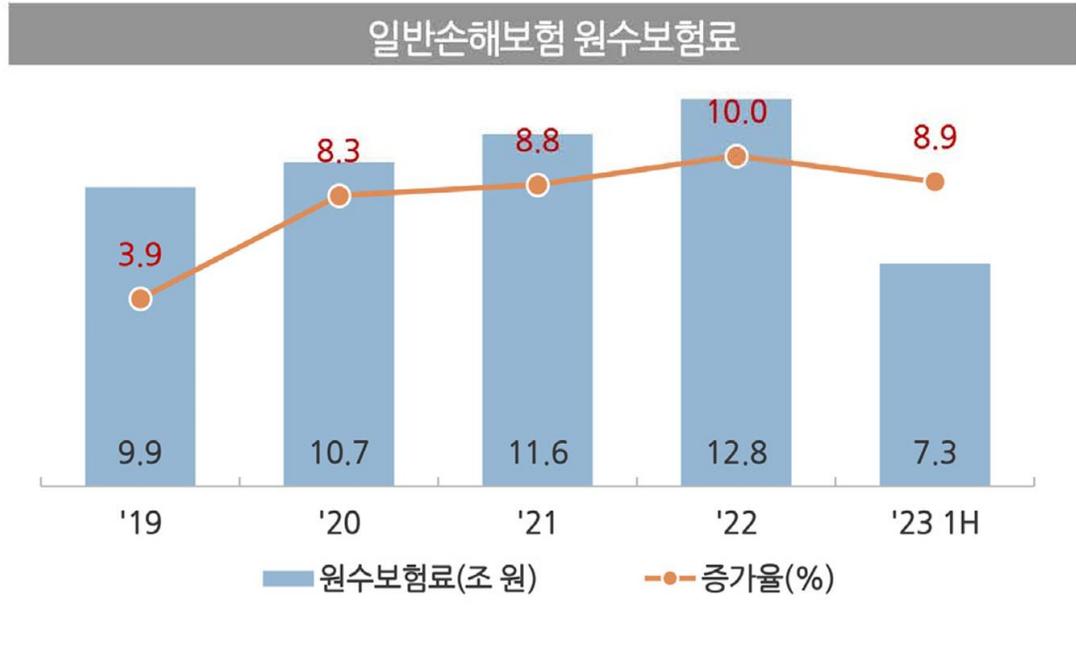
[장기 51.4%, 퇴직연금 18.8%, 자동차 17.3%, 일반 9.8%(특종 7.1%, 해상 0.7%)]



(* 출처: 보험개발원, 보험통계조회서비스, <https://incos.kidi.or.kr:5443/insInfo/selG21ViewDetail.do>)

03 일반손해보험의 성장

[해상/보증/특종보험 중심의 성장: 수출입 물동량 증가, 신용보증확대, 책임보험시장확대]



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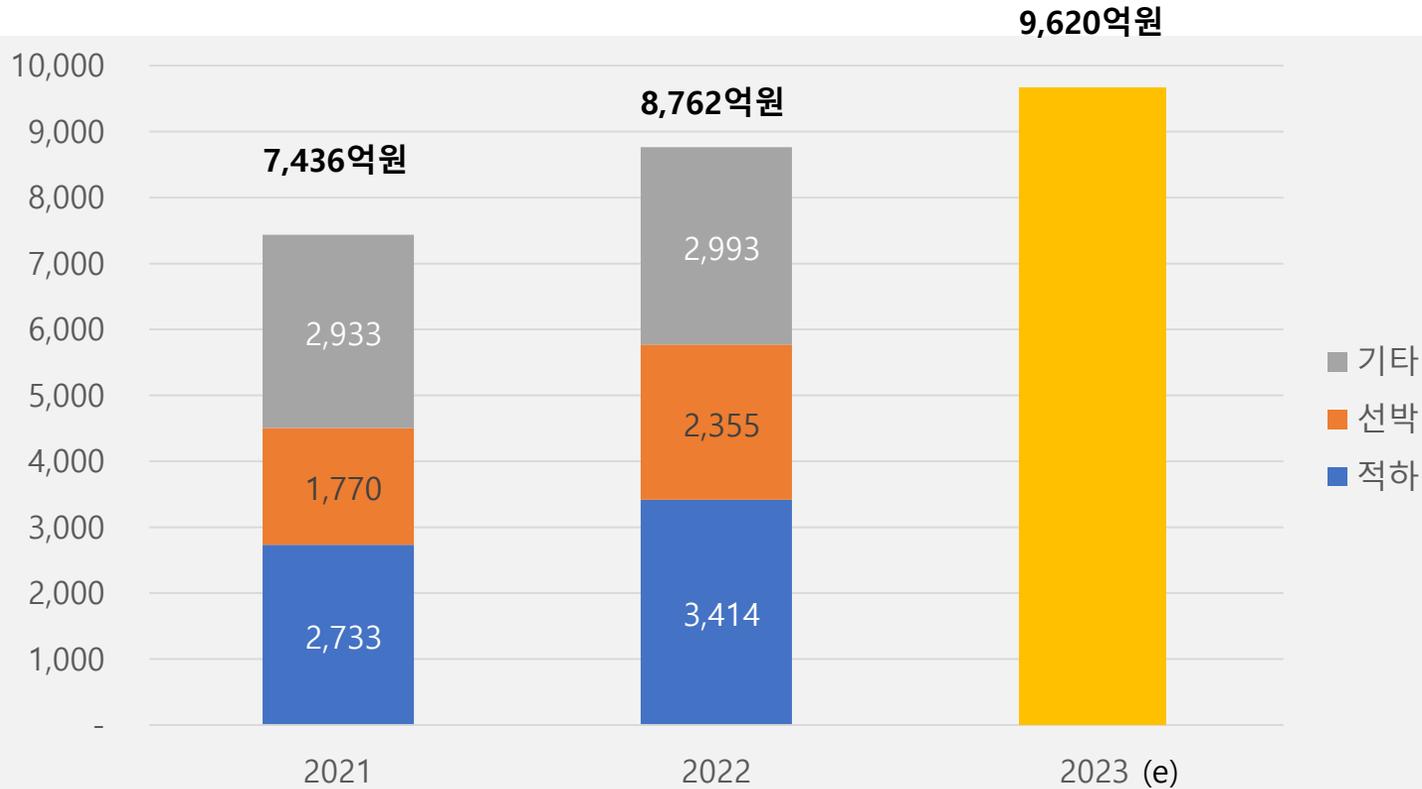
구분	'22 2/4	3/4	4/4	'23 1/4	2/4
화재	0.1	-0.9	0.3	2.3	0.9
해상	28.4	10.6	25.4	21.7	3.0
보증	1.0	4.0	2.7	1.8	15.4
특종	8.7	10.4	9.9	5.9	11.8

주: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
(* 출처: 보험연구원, 2024년 보험산업의 전망과 과제, p.54)

03 우리나라 해상보험시장 현황

[2023년 해상보험 수입보험료 9,620억원 (전년비 9.7%↑)]
[2022년 종목별 비중 : 적하 38%, 선박 26%]



(* 출처: 보험개발원 : 2023년 기업성보험 통계분석보고서)

03 우리나라 해상보험의 과제

01



혁신성

- 이전에 없던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보장 요구
- 선박대형화, 전기차 등 위험화물, 친환경연료추진기관, 사이버리스크, 자율운항선박

02



확장성

- 선체/P&I의 전통적 영역 구분 모호
- 해상물류와 관련한 포괄적 배상책임 영역 보장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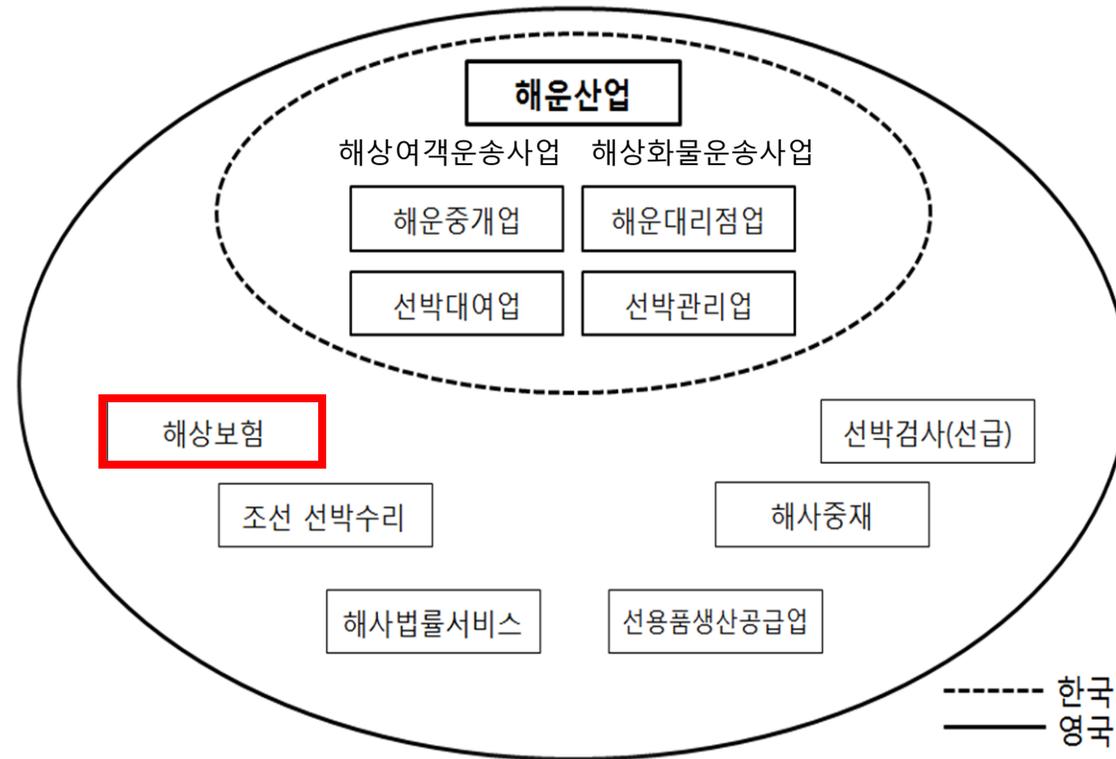
03



전문성

- 해운조선산업에 고유한 리스크 이해
- 글로벌 트렌드 이해 및 주도

해운산업의 범위



(* 출처: 해양수산부, '제4차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', 2016)



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

요!

오늘 발표 Key Point

- ✓ 보험증권 = 법률문서
- ✓ **Oldies but Goodies**
- ✓ 해상보험도 해운산업의 구성원

발표 내용 관련 질문 받겠습니다.

발표 경청해 주셔서
감사합니다

권오정

oscarkwn@hotmail.com